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 hc1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발 행 인 : 한 균

춘천성시신문

성 시 비 전
교회 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 제118호 2008년 9월

풍요의 계월, 9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 보다 나으니라"(잠 15:7)

민족의 명절, 한가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삶의 지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기도합니다



INDEX

2 하나된 강원기독교의 힘~
남강원도를 넘어 북강원도로 흐르게 하리!
4 춘천이여~ 빛을 발하라!!
6 넘치는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메드로교회)



9 | 축대봉



13 | 비베트의 만찬

"하나 된 강원기독교의 힘~ 남강원도를 넘어 북강원도로 흐르게 하라~!"

2008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살펴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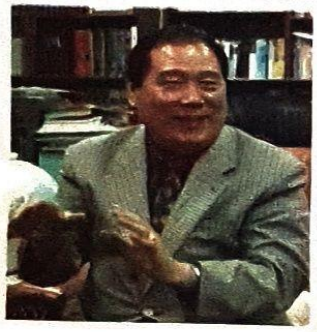
참여자 : 김주환(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장), 오승룡(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진행자 : 정재호 / 사진 : 김미경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강원도출신의 태극전사들이 보여준 강원도의 힘은 놀라웠다. 지금까지 강원도는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미래의 땅(?)이었다.

그런데 강원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강원도가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 평화시대를 주도할 강원도의 힘은 하나 된 강원도기독교의 연합된 힘에서 비롯되고 있다. 강원도 기독인들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도시와 친환경첨단산업을 일으켜서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2008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김주환 목사(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장), 오승룡 목사(사무총장)를 찾아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역들을 소개해 달라

▮ 김 주 환 목사(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올해로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창립된 지 9년째가 된다. 9대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린다. 총연합회는 지역선교와 발전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되었다. 특히 강원도 동계올림픽을 후원하기 위해서 **'백두대간 횃불기도대성회'를 개최하여 기독교인의 힘을 결집하는데 노력하였다.**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는 총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다. 결집된 기독인들의 기도가 없이는 지역선교와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지금까지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는 8월 15일을 전후하여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9월 28일 춘천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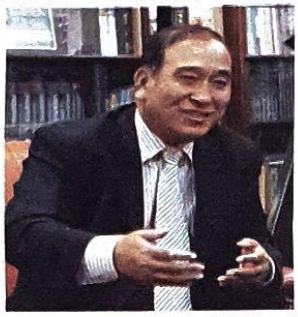
총연합회가 올해부터 열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역은 '북강원도 결핵어린이 돕기운동'이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사랑은 영혼을 구원하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현재 총연합회는 강원일보사와 춘천CBS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3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어린이를 돕는 일에 교파를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 특히 암수술비용으로 준비했던 돈을 선뜻 내놓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도 있었다. 특히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많은 성금이 들어오고 있다. 현재 1억3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지역발전과 선교, 그리고 북한결핵어린이를 돕는 일에 강원도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를 위해 총연합회 임원들이 18개 시,군을 방문하여 협력을 요청하였다. **모쪼록 9월 28일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백두대간 횃불기도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고 싶다.**

지금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들의 반응은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런데 3차 도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 김 주 환 목사(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안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역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 이미 도 단위에서 결정된 일이다. 또한 이것이 국가발전에 큰 피해를 입히거나 결정적 타격을 주는 일 아닌 이상 되도록 긍정적인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오 승 룡 목사(총연합회 사무총장)



강원도는 2010년과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하였다. 현재 세 번째로 도전하는 동계올림픽은 2018년에 개최되는 것이다.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역이기주의이다. 둘째,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평창올림픽이 성사되면 평창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단종파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오해이다. 세 번째, 평창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올림픽준비를 위한 부지매입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 우리 기독인들이 마음을 열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08년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떻게 준비 중인가?

▮ 오 승 룡 목사(총연합회 사무총장)

회장님의 열정이 남다르시다. 특히 북한결핵어린이돕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고 계시다. 큰 도전과 감동을 받는다. 이 일을 위해 강릉 경포현대호텔에서 총연합회 정책세미나를 1박2일로 개최, 북강원도 결핵어린이돕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조남진 장로님을 본부장으로 세워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9월 2일(화)에는 "2019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목회자 기도회 및 체육대회"를 횡성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18개 시,군에서 참가하는 연합회회원들과 친목을 다지면서 백두대간 횃불기도회(9.28)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잔치로 진행된다. 춘천지역 찬양단의 찬양인도와 교회연합찬양대가 구성된다. 우리는 독일통일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다. 정부가 못하는 일을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할 때 이루어진다.

▮ 김 주 환 목사(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원도 기독교인들의 힘을 결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 모금되어진 기금은 북강원도결핵어린이를 돕는데 사용되어질 것이다. 본 연합회가 조사해본 결과 도내에도 34명의 어린이들이 결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어린이들도 함께 치료해주려고 한다. 강원도 18개 시,군 100% 참여를 목표하고 있는 이번 백두대간 횃불기도회에 춘천지역 목회자들과 장로님, 평신도들의 많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춘천이여~ 빛을 발하라!!!

춘천 성시화를 위한 2008선교대회를 준비하며

한 균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장)



2008년도 벌써 가을로 접어들어 춘천 성시화를 위한 '2008 선교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0월 5일(주일) 저녁부터 10월 8일(수) 저녁까지 열리는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집회가 단순한 연례행사로 끝나지 않고 카이로스적 사건이 되어 춘천성시화의 불을 댕기고 교회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영적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와 진행이 필요합니다.

1. 기도의 준비

상투적인 말 같지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위해 각 교회에서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동참하여 전에 없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기도 속에 집회가 준비되면 춘천에 성시화의 강물이 다시 흐르고 교회들은 부흥될 것입니다.

2. 회개와 결단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거기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 하였습니다(삼상 7장). 미스바 성회의 특징은 회개와 결단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 철저한 회개와 결단이 이루어지면 이 도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3. 예배의 회복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 잃어버린 제사를 회복함으로 성전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스 3장). 이번 집회를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고 성시화의 동력을 다시 일으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춘천은 성시화를 태동시킨 성시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춘천 성시화를 꿈꾸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춘천의 실개천들이 모여 강물을 이루고 그 물이 서해로 흘러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 이 작은 도시 춘천에서 발원한 성시화도 우리 민족과 세계를 향한 거대한 물결이 되어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지상명령이요,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공동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은 오직 하나, 그것은 주기도문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 18세기 영국을 구원한 존 웨슬리의 메도디스트 운동처럼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살리며, 세계를 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과 비전, 춘천성시화입니다.

10월! 춘천성시화를 위한 선교대성회는 이러한 목적을 가진 집회로 준비되고 진행될 것입니다. 이 호반의 도시 춘천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시화의 물결이 출렁이도록 이번 집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선교대회 프로그램 >>

◈ 춘천 선교대회 부흥성회
- 일 시 : 10월 5일(주일) ~ 8일(수) 오후 7시
- 강 사 : 오 정 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
- 장 소 : 평화감리교회

◈ 목회자 세미나
- 일 시 : 10월 7일(화) 오전 10시30분
- 장 소 : 평화감리교회

◈ 성시비전포럼<One Vision One Movement>
- 일 시 : 10월 9일(목) 오후 2시 ~ 5시
- 강 사 : 각 지역 성시관련 인사
- 장 소 : 동부교회 소예배실(예정)

◈ 찬양과 함께 하는 성시중보기도회
- 일 시 : 10월 9일(목) 오후 7시30분
- 장 소 : 유스 아트홀(명동 유영호치과 3층)

춘천성시화를 위해 동참해 주세요

1. 성시투입다키기

10월은 성시화운동이 태동된 달입니다.
10월 첫째주일을 성시주일로 지켜주시고,
성시화운동을 위해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시화운동의 소개를 위해 좋은 강사를 초대하고 싶은 교회는 연락주세요. ▶문 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56-1260

2. 제3기 성시아카데미 개강예정

일 시: 2008년 10월 13일 ~ 17일 예정 저녁7시~10시
(한주간 집중교육 월,화,목,금)
장 소: 평화감리교회 회 비: 7만원
강 사: 성시화와 통일북한문제 관련 전문강사
문 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56-1260

2008 춘천이여! 빛을 발하라!!! 춘천 선교대회

춘천 선교대회 부흥성회
- 일 시 : 10월 5일(주일) ~ 8일(수) 오후 7시
- 강 사 : 오 정 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
- 장 소 : 평화감리교회

목회자 세미나
- 일 시 : 10월 7일(화) 오전 10시30분
- 장 소 : 평화감리교회

성시비전포럼 <One Vision One Movement>
- 일 시 : 10월 9일(목) 오후 2시 ~ 5시
- 강 사 : 각 지역 성시관련 인사
- 장 소 : 동부교회 소예배실(예정)

찬양과 함께 하는 성시중보기도회
- 일 시 : 10월 9일(목) 오후 7시30분
- 장 소 : 유스 아트홀(명동 유영호치과 3층)



강사 오 정 호 목사
(대전 새로남교회 담임목사)

학 력
- 총신대학교 졸업
- 총신대 대학원 졸업
-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졸업

경 력
- 제자훈련 목회 지원의회(Call-net) 전국대표
- 한국교회 미래목회 포럼 이사장
- 국제선교회(Operation Mobilization) 대전이사장
- 대전 중앙 학원복음화협의회 공동대표
- 대전 CBS 운영이사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거룩한 도시를 위하여 다음세대를 준비하라!
– 2008 청소년비전캠프를 다녀와서

■ 선조들의 숨결을 느낀 8박9일의 여정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지난 8월 4(월)일부터 12일(화)까지 8박9일 동안 단동가나안농군학교와 협력하여 중국에 있는 고구려유적지답사, 백두산등반, 접경지역선교지를 방문하는 청소년비전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청소년비전캠프는 "거룩한 도시를 위하여 다음세대를 준비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옛 선조들의 숨결이 깃든 의미 깊은 유적지를 돌아보고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다가오는 글로벌 시대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성시화운동의 중요성과 신앙정신을 전수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 우물 안 개구리에서 넓은 세상으로

이번 청소년비전캠프를 통하여 느낀 점이 많이 있지만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다. 참된 교육에 있어서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또 한 가지, 하나의 사실을 배우기 위해 직접 땀을 흘리는 고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몸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며 배운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청소년비전캠프가 진행되면서 별다른 기대나 흥미가 없이 참여한 우리 학생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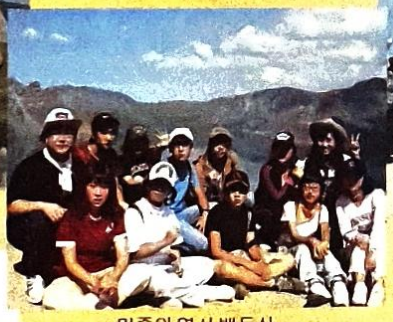
■ 청소년비전캠프는 꿈나무들을 키우는 사역

비전캠프를 다녀온 후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에 구체적인 관심이 생겨 책방을 서성거리다가 몇 권의 책과 만났다. 청나라 정부의 조기유학 프로젝트를 소개한 유미유동(첸강, 후징초, 시니북스)과 한국사 유학생 열전, 꿈을 찾아 떠난 젊은이들(이강렬지음, 황소자리)이다. 청운의 꿈을 가슴에 품고 배움을 위해 세계로 떠난 수많은 꿈나무들을! 예수님께서도 평생 갈릴리 유대지역을 그 자신이 떠나시지는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시면서 넓은 세상을 가슴에 품을 것을 명령하셨다.

앞으로도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춘천지역의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개척하고 사역하는 선교지 현장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차세대를 준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며 기도의 아낌없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정 재 호]


고구려 유적 장수왕릉


민족의 영산 백두산


고구려 고주몽의 첫도읍지 오녀산성


단둥 기나안농군학교에


북한 신의주, 위화도 조망



민족의 아픔, 압록강 단교


단동 천금교회



■ 청소년 비전캠프를 다녀와서...

"수련회를 다녀와 기대도 설렘도 미공함에 문힌 채 바로 중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도착하자 신기하고 새로운 세계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루 하루 지나면서 시크 친해지고 참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밤 기도로 하루를 맡이하고 일정을 정리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강사님들께 우린 많은 날씨에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었고 북한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느꼈다. 감사드린다." – 이슬비(동원교회 청년)

"처음 가는 선교여행, 두려움과 설렘의 마음으로 떠났다.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속 짐을 집을 한꺼번에 내려놓고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항상 나만 힘들고 아프다고 주님께 투정부렸던 나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청소년비전캠프를 통하여 넓은 세상과 넓은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함께한 목사님, 강사님, 아이들 모두 사랑해요~"

– 이혜영 (동원교회 청년)

"사실 큰 기대감 없이 청소년비전캠프에 참가했다. 그런데 중국에 오지 않았다면 많이 후회할 뻔했다. 중국에서 북한 땅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전엔 통일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빨리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국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 김 원 (늘사랑교회 학생)

"고구려 땅을 중국에 빼앗겨서 너무 속상하다. 빨리 우리 고구려 땅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백두산을 마음껏 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정여진 (늘사랑교회 학생)

"너무 좋았다. 깨끗하고 맑은 천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여행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앞으로 부모님 더 열심히 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 박요한 (주찬양교회 학생)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여~ 새롭게 이 땅을 재건하라!" - EARC 2008

조 건 이 [춘천 IVF, 강원대, 늘사랑교회 청년]

동아시아 지역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도쿄 요요기 메모리얼 유스센터에서 열린 'EARC 2008'에 참가했다. EARC는 East Asia Regional Conference의 약자로 3년마다 IFES에 속한 동아시아 지역 나라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수련회를 하는 것이다. 한국은 IVF라는 이름으로 IFES에 가입되어 있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캠퍼스 속에 하나님나라를 위한 학생운동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올 2008년 일본에서 열린 EARC에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마카오의 학생들 약 370여명이 함께 모여 "Let us start rebuilding"이라는 주제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새로이 이 땅을 재건할 것을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깨어 있으라!

6일 동안 각 하루하루 테마를 정하여 그 테마에 걸맞는 Quiet time, Bible exposition, Program, Outing, Small group, Work shop, Plenary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날은 각국 학생들이 모여 Opening 시간, 둘째날은 "Temptation"이란 주제로 이 세대를 살아갈 때 물질만능주의와 쾌락주의, 개인주의, 성적 방종 등 이 시대에 공통으로 겪는 비성경적 가치관에 현혹되지 않되 무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학생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 깨어 옳게 분별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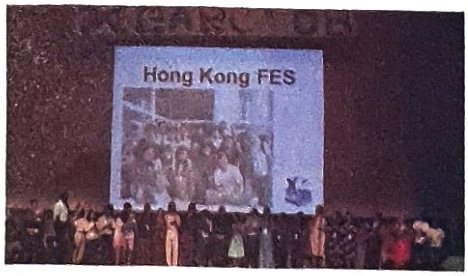
셋째날은 "History & Society" 주제로 근대화가 빚어낸 여러 긴장들, 종교 간의 갈등, 가난 · 부정에 고통받는 사람, 우리 사회의 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며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도전하였다.

넷째날의 주제는 "Campus", 각 나라의 운동과 상황 기도제목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보면서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모습은 동일하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느꼈다. 또한 한국IVF의 모습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었다. 다섯째날의 주제는 "Kingdom"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세대가 되라고 도전하였다. 마지막날은 KGK(일본IVF) 6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 "미래 KGK의 비전"을 주제로 일본의 1% 그리스도인에 속한 KGK학생들에게 용기를 주며 다시금 소망을 품는 시간을 가졌다.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지난 7월 IVF가 11년 만에 전국수련회를 가졌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캠퍼스의 운동이 우리 공동체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 IVF가 함께하는 것임을 느끼며 감격하였다면, EARC를 통해서는 캠퍼스 속에서 하나님나라 운동을 하는 것이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운동임을 깊이 느끼며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달랐지만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임을 느끼며 서로 함께 기뻐했다. 또 각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 6~7명이 한 조가 되어 매일 말씀과 우리의 상황들을 나눴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민과 직면한 문제들이 그리 다르지 않음을 느끼며 함께 공감하였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를 이 세대에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심을 알았고,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있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 속에서 캠퍼스와 사회와 열방을 향해 우리의 시야가 점차 넓어지길 소망하게 되었다. 아직은 너무나 작고 미약한 몸짓이지만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항상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은 1992년 중동에서 사역하던 몇 명의 기독교 사역자들이 모임을 갖는 중에 탄생되었다. 당시 그들은 가능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하였는데, 때마침 이슬람 라마단 기도 기간과 맞물리게 된 것이다. 라마단이란 '이슬람력에 따라 라마단 월에 행해지는 무슬림의 금식 기도'를 말한다. 라마단 기간은 매년 조금씩 변동되는데 2008년에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라마단 기간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은 무슬림의 기도와 금식을 본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매년 일정한 기간에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1년 중 무슬림이 가장 신앙생활에 중점을 두는 기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간구하기 위함이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슬림이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무슬림을 향한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 기도 운동의 또 다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일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한다.



무슬림은 무엇을 믿는가?

무슬림을 위해 기도할 때, 무슬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슬림은 무엇을 믿는가'는 무슬림이 어떤 세계관으로 신앙을 추구하며 이로 인해 이들의 삶은 어떤 영향력 속에 있는지, 전 세계, 각 국가에 무슬림의 통계와 함께 무슬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이다.

1. 기간: 2008년 9월 1일 - 9월 30일
2. 가격: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 2,500원
   무슬림은 무엇을 믿는가? - 1,500원
3. 문의: 예수전도단 춘천지부(252-1128)

노인 요양보호사

시. 험. 없. 이 국가자격증취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규반 모집 정원 : 40명, 기간 : 45일

▶등 록 : 선착순 접수함 ▶현재 접수중(나이, 학력, 구분없이 누구나 다 신청 가능)

본 자격증을 취득 하시면 세가복지시설원장이 가능하며, 요양보호사실 취업이 가능합니다.

"9월22일 신규반 : 주간 · 야간반 40명 모집"

※ 자연속의 쾌적한 공간, 셔틀버스운행, 넓은 주차장



강원요양보호사교육원 사무실 ☎033)241-2660, HP011-448-7660

춘천시 동면 월곡리 192번지 (동면 묵동산 옆)



넘치는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

1995년 봄, 이춘일 목사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짧은 역사가운데 의미 있는 사역을 이어온 교회가 베드로순복음교회이다. 이춘일 목사의 개척 이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꿈을 가지고 나날이 부흥, 성장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베드로순복음교회(이춘일 목사)편입니다



이춘일 목사

이 목사는 독실한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1967년 성령세례를 경험하게 된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서대문시절의 신화(?)를 이어가던 때였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성령 충만했던 소년 이춘일은 감히 "주님의 일에 전심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게 된다. 하지만 막상 신학교를 진학할 무렵이 되자 부유했던 가정은 부친의 소천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이춘일 목사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시련은 실명위기였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술에 만취한 사람과 골목에서 부딪힌 것이 안경 파편이 튀면서 실명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다.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게 하시면서 극적으로 용터 없이 파편을 제거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이 목사는 치료를 위해 영등포 시립병원과 서울대학교 병원의 검사를 거치면서 자신에게 또 다른 치명적인 고혈압 지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정상인 보다 무려 100이상 수치가 높았던 고혈압 증세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와 함께 당시에 전 세계에 불과 4건 정도만 보고될 정도의 희귀한 병이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실험 대상(?)이 되어 고통당하던 청년 이춘일은 어머니의 권유로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야반도주 격으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게 된다. 이때 목숨을 건 21간의 금식기도를 통해 극적으로 지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 이 목사는 당시 실명위기와 고혈압 치료가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었다고 회고한다.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나름대로 제법 큰 사업을 전개하던 이 목사가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한 것은 그보다 조금 이후의 일이었다.

찬양사역에 은사가 있었던 이 목사는 전도사 시절 여의도순복음교회 집회를 비롯하여 여러 연합집회에 초교파적으로 지휘자로 서기도 한다. 평탄하고 순조롭게 사역하던 이 목사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 부목사 생활을 한 것이 10년. 10년 사역을 마치고 교회 설립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지난 1995년 4월의 일이었다. 순복음춘천교회(담임/김주환 목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바탕으로 석사동 지역에서 복음전파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 목사는 김주환 목사와 순복음춘천교회의 후덕한 사랑이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성공적인 교회 개척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고한다.

베드로교회와 사역

물론 교회 개척 이후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 목사는 교회를 섬겨가면서 재정에 대한 대원칙으로 '절대로 먼저 남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바라지 말자. 오직 기도로 구하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개척 시부터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라고 뜻을 세웠다. 하지만 개척 2년차 무렵, 물질적인 어려움과 성도들의 잦은 이동으로 의욕을 잃어 사역을 정리하고자 마음먹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성령님의 책망과 격려를 통해 힘을 내어 오히려 사역에 더욱 정진하게 된다. 100일 작정 도만 3번, 성경통독과 함께 깊이 있는 내면적 성령체험을 하는 시기였다.

은혜 가운데 부흥하여 지금 건축이 마무리 되고 있는 베드로순복음교회는 3년 전 매입한 토지 위에 대지 500평, 건평 700여 평, 1,0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결코 모자라지 않는 중대형교회로 도약하고 있다.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된 건물은 북카페를 겸하여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요 교제의 장소로 꾸며진다. 개척 13년 만에 이룩한 놀라운 부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목사는 교회 건축에 관한한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니와 기도와 말씀가운데 행동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비록 현실은 바늘구멍 같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힘주어 말한다.

베드로교회는 제도화된 교회 보다는 넘치는 은혜 속에 복음의 자유와 멋스러움을 추구하는 교회이다. 주님의 제자가 길러지는 방식도 정형화된 제자훈련 방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라고 말한다. 아마도 1세기의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가 되는 과정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



현재 춘천교경협의회 회장, 강원신학교 학장, 순복음교회 강원지방회 회장 등 중요한 직책으로 강원도 복음화와 춘천 성시화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이춘일 목사와 김진영 사모,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 은혜, 요섭 그리고 사랑스럽고 성숙한 사역자들과 교우들이 있기에 베드로교회는 반석위에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이다.

[진행 조영춘,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국가자격 요양보호사 수강생 모집

취업을 걱정하십니까?

-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따른 5만 5천명의 요양보호사 인력필요
- 6주 교육 후 시험없이 국가자격 취득
- 연령 학력 성별 제한 없음
-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장 자격 획득

강원도 지정 교육원

기존의 간병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등 봉사요원은 이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최고의 강사진
- 탁월한 교통 요충지
- 체계화된 교육내용



[주간 · 신규] 9월 8일 개강 [야간 · 경력자반] 개강 / 개강 이후 수시모집[주간 · 야간 · 주말반]

[섬김과 나눔 요양보호사 교육원] ☎ 241-8801 · 241-8802

(운교동 피흘소 앞, 외이신협, CBS기독교방송 3층)

| 영혼의 양식

훌륭한 멘토 바나바

(행11:19 ~ 30)



홍 유 식목사(구암교회)

초대교회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을 피해 안디옥까지 와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 예루살렘교회는 이방인들을 이해하고 저들을 세우는데 바로 이 지역 출신인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에 지도자가 없어서 바나바가 파송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바나바는 교회에 도착해서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행4:37절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초대교회가 구제하는데 기여했을 정도로 그는 은혜를 마음에만 간직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몸소 실천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에게는 참된 일꾼으로서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지만, 특별히 그에게서 발견되고 그의 인격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첫째,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남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름지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남의 장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덕망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장점만을 봅니다.

둘째, 바나바는 사람을 알아보는 훌륭한 멘토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울을 못 믿겠다고 의심하지만 바나바는 변화된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바울이 활약하기 전, 난처한 지경에 처했을 때에 바나바는 그를 믿고 많은 사람 앞에서 추천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중생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볼 줄 알고 키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그리스도인 됨을 알고, 믿었습니다.

셋째, 바나바는 허물을 용서할 줄 알고, 질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초대교회에 그렇듯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내가 키운 사람이라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세울 줄 아는 지도력과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내세워 놓았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일을 하게 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이지만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다소에서 그냥 묻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안디옥교회는 이방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들은 좋은 기독교인이었고 다른 교회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으며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선교의 중심이 된 안디옥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런 훌륭한 인물이 없었다면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되었으며, 세계 선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바나바를 생각하며, 우리들 스스로를 투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좋은 기독교인으로 만드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삼아 주시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로 만드시사 안디옥교회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담당하며,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해 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사색의 창

인생의 역전(逆轉)



전 용 찬장로
(춘천제일장로교회)

최근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을 읽었다. 깊은 감명과 감사의 의미를 다시한 번 되새기게 되었다. 성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도,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보면 나는 어디에 속할까 뒤돌아보게 된다.

4년 전 나에게도 인생의 큰 변화가 왔다. 32년 동안 정든 직장을 조기퇴직하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인생의 후반기를 맞았고, 혼란과 아쉬움 속에 1년여 동안을 방황하였다. 인간관계에 실망하고, 그 미움으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건강까지 나빠져 최대의 시련을 맞게 됐다. 이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였다. 힘들 텐데도 조금의 불평 없이 자녀들을 이해시키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고…

그러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따를까?' 원망도 했다. 분을 삭이지 못해 혼자 울기도 했다. 그때 욥과 엘리야가 나에게 다가왔다. 욥보다는 낫지 않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와 비하겠느냐? 그래, 훌훌 털고 일어서자. 가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 기회를 통해 다시 시작하자!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져야만 했던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일어섰다.

작년 11월 구직을 의뢰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검색하던 중 춘천에 있는 공군부대에 매점(P.X)을 신설하는데 직원을 구한다기에 나이 먹은 사람을 써줄까 반신반의로 서류를 제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면접을 마치고 나니 먼저 직장 업무외도 무관하지 않은 일이기에 꼭 합격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니를 뽑아주실 거야.' 라고 조비심 내며 기다리는데 합격전화가 왔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목사님과 아내에게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정말로 뜻하지 않은 귀하고 좋은 직장을 예비해 두신 것이다. 지난 4년여 동안의 모든 상처가 이물고 새살이 돋아나는 느낌이었다. 긴 터널을 빠져 나온 듯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몽골선교를 두 번 다녀오고 장로로 피택 되어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성장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욥기서를 다시 읽었다. 힘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깨달아 알 것 같다.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한다.

대룡산 자락에 위치한 고즈넉한 무대. 오늘따라 병사들도 조용하고 이름 모를 새소리와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곳, 적막감이 있지만 이런 환경은 성경 읽기 딱 맞는 장소이다. 그간 통독한번 변변히 못한 나에게 또 하나의 선물인 셈이다.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고 감사는행복의 연습이다』라는 글이 기억에 남는다. 없어진 것, 부족한 것에 불평하지 말고 남은 것,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지만 이 평범함을 위해 고통 받고 힘들어 하는 이들을 생각해본다. 밀려오는 행복함으로 잠자리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한다. '부디 겸손하게 하소서. 교만을 버리고 늘 자신을 돌이보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스스로 깨닫는 자각(自覺)의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새로운 길을 기대하며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과 만날 내일 새벽을 준비하며 편한 잠을 청해본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 감사의 조건이 아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독자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기사투고) T. 256-1260~1 F. 033)257-1260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토요워십댄스반 개강
✚ 개 강 일 : 2008년 9월 20일(토) 석사동 우석초교앞 경원대태권도장
✚ 수업시간 : 오 전 반 - 9시30분 ~ 11시
오 후 반 - 오후3시 ~ 4시30분
✚ 대 상 : 아동부 (6세~15세까지),
성인부 (직장인, 주부, 청년, 사역자 등)
※ 신청 접수마감은 9월 18일까지입니다.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263-6022 · 017-374-2440

"푸른 꿈" 3주 영어 완성
영어의 왕초보도 좋다. 단어 암기 기피증이 있어도 좋다.
영어를 싫어해도 좋다. 영어 때문에 공부가 싫은 사람도 좋다.
영어가 어렵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체험 할 것이다.
3주로 영어 고민에서 끝 ~ 영어 재미는 시작!!
"초등학교 시절 푸른 꿈 영어로 영어를 쉽게 배운 덕에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1년간 가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춘천여고 1년 정 샘 -
대 상 : 초교 4학년 ~ 성인까지. 접 수 9. 12까지
강의개강 : 9. 16 ~ 10. 6까지 (월 · 화 · 목 · 금) 오후 4:30, 6:30
특 강 료 : 10만원(교재비 포함) 011-9797-4217
훌륭한 인재를 목표로 하는 대영 E.M.I학원" (퇴계 우성 @앞 상가2층)



제 2 의 욥 을 보 다

믿음의 기업 천일기획 대표 전천일 장로(순복음춘천교회) 편입니다

"나는 이런 신문에 나올 인물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장로님과 만났을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었고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또다시 하신 말씀이었다.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기에(약 2:9) 영 안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나를 무장 해제하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기쁨이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 믿음의 단련

전통적 유교 집안에서 자라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 채 살다가 고1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부함을 무시한 채 세상과 벗하여 살다가 둘째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술로 살다가 나이 40이 되어 주님에게로 돌아왔다. 야곱과 욥과는 다르지만 험한 세월과 시험에 빠져 산 전천일 장로의 지난날들을 보니 하나님의 아픔이 전해져온다.

주님에게로 와서 먼저 보인 것이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이었단다. 자신을 오랫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큰 아들을 위해 무릎과 성경 필사로 기도했다. 그의 기도로 지금은 큰 아들도 주님을 영접했다. 기다림이 20년이었으니 그 행복을 감히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우리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평강이요, 신적본성에 참여한 자의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영적 성장의 시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일까 궁금하던 차에,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목사와 석사감리교회 이학규 장로는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의 손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든 믿음의 본이었다고 한다.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 4:5)는 바울의 말처럼 역시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서 그 씨가 뿌려지는가 보다.

그는 계속해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 현재 네 번째 필사로, 성경 필사를 7번까지 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큰아들을 위해 기록했고, 미국에 있는 결혼한 막내딸을 위해 기록하여 보냈고, 품에 두지 못하고 다른 곳에 보낸 딸을 위해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만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으니 예수님만 믿어라.'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록하여 쓴 세 번째 필사본과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 아내와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7번 기록하기로 작정했다. 성경 필사를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그에게 성경 필사는 큰 기쁨이었다.



그에겐 또 하나의 큰 기쁨이 있다. 바로 교회 주차관리봉사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에는 어김없이 새벽 5시반부터 오후5시까지 늘 웃음으로 성도들을 맞이한다. 그리고 연합행사 때면 밝은 미소로 맞이하는 전 장로를 볼 수 있다. 올해로 6년째, 현재는 주차관리대장으로 대원들과 함께 기쁨으로 섬기고 있다.

또한 그는 일찍부터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를 마치고, 스태프로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다.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섬길 것이라고 말한다.

■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천일기획

전천일 장로는 주님이 주신 기업 '천일기획(현수막)'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현수막을 제작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다. 그래서 교회현수막 주문만 받는다고 한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는 돈이 없으면 그냥 만들어 준다. 그렇게 교회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전 장로는 복음의 일에 봉사와 물질로 참여하고 있다(춘천기독교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교역자연합회, 장로연합회, 직장선교연합회, 교경협의회, 선교협의회, CCC, JDM, IVF, ESF, 예수전도단, 군선교연합회, 에스컴, 월드비전, 홀트 등등).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입증하는 바울의 말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고후 6:10)라는 말씀이 오히려 "너희는 이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롬 12:2)라는 말씀이 전 장로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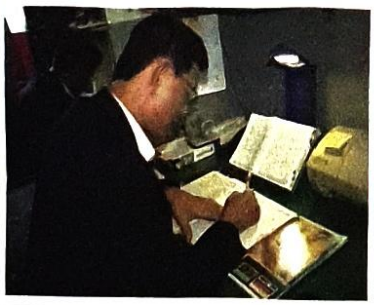
■ 아내의 고백

"돈을 못 받아도 교회가 우리 현수막을 해가면 너무 기쁘다는 당신, 자신을 위해선 먹고 쓰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사람이기에 때론 바보처럼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의 행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부 학교 당시 장로님이 우연히 본 아내(임경숙 권사)의 유언장에 쓰여 있는 글이란다. 장로님의 아내가 인정하니, 또 증인이니,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심이지 않을까?

전 장로는 가끔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외치곤 한다. 누가 그에게 기쁨을 주었을까?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께서는 지극히 동정이 많으시고 소중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약 5:11) 그분이 아니셨는가?

[취재 이영규, 사진 김미경]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척 미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장로
아버지학교 성경필사(스텝) (서울동부지방회기수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우리 곁에 있는 山

촉대봉 (燭臺峰)



촉대봉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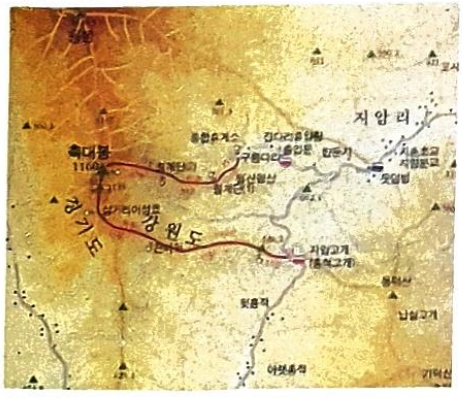
촉대봉은 여름이면 인기가 있는 지암리 집다리골을 품고 있는 산이다. 집다리골에 있는 휴양림에 들어서면 수량이 풍부한 수정 같은 물이 쏟아져 내리는 장관에 저절로 청량함을 느끼곤 하는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산이 높기에 이렇게 수량이 풍부할까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촉대봉의 높이는 1167m(정상 표지석에 표시된 높이, 지도마다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이고,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와 강원 춘천시 사북면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화악산(1,468m)과 동쪽 응봉(1,436m)에서 동남쪽 지암고개(홍적고개)로 이어지는 능선에 솟아 있다. 이 능선은 몽덕산, 가덕산, 북배산, 계관산, 삼악산으로 이어지기에 종주코스로 알려지고 있다. 이름은 정상 부분이 봉우리 세 개로 되어 있고 끝이 뾰족한 데서 유래하였다. 촛대봉이라고도 한다.

등산로

응봉에서 이어지는 능선은 경기도 가평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능선에 있는 산들은 가평군 쪽의 등산로가 많이 알려져 있다. 촉대봉도 그렇다. 그런데 촉대봉에 오르는 최단코스는 집다리골 휴양림을 통해서 오르는 코스이다(코스 1).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도 있는데 지암고개(홍적고개)에서 오르는 길이다(코스 2).



[코스 1]

집다리골 휴양림 (구름다리) → 25분 → 임도 I (철계단) → 40분 → 임도 II (철계단) → 30분 → 촉대봉

※ 휴양림 매표소에서 오르는 코스도 있다. 중간에 임도를 만나는 것도 코스 1과 같은 구조인데 등산로가 선명하지 못하고 시간이 30분정도 더 걸린다. 이 매표소 쪽에서 올라 하산을 구름다리 쪽으로 해도 좋을 듯하다. 조금은 가파르다.

[코스 2]

지암고개 (홍적고개) → 0.6 km / 30분 → 526봉 → 2.2km / 90분 → 중간 이정표 → 1.2km / 60분 → 삼거리 이정표 → 1.4km / 60분 → 촉대봉

※ 이 능선은 20m 폭의 방화선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이면 사람 키 높이만큼의 억새와 잡풀로 다니기 힘들다. 이것이 제거되는 겨울에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촉대봉의 매력

1. 정상에서 보는 전망이 뛰어나다. 여름이면 정상 주변의 나무들로 전망이 조금은 가리지만 경기도 가평의 이름 있는 산들을 조망할 수 있다. 촉대봉의 배경이 되는 화악산과 응봉의 1400m급의 우람한 산세와 북서쪽으로는 중봉과 국망봉, 서남쪽으로는 명지산(1,267m) 주능선이 보인다. 동쪽으로 용화산과 춘천호, 남쪽으로 춘천시까지 볼 수 있다.



▲ 동쪽으로 보이는 춘천호와 용화산(용화산은 육안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진으로는 판독하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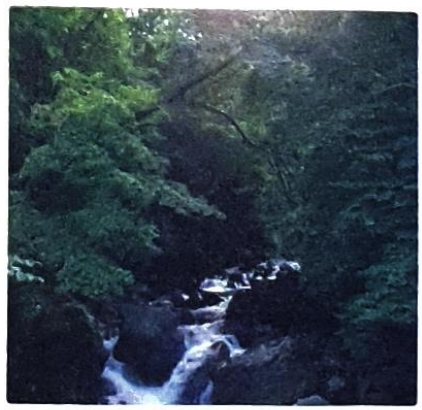
▲ 정상에서 보는 화악산

2.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긴 능선이 있다. 몽가북계라 불리는 능선이다. 비록 응봉이 군사시설로 등산로가 개방되어 있지 않아서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촉대봉으로 시작해서 삼악산까지의 능선을 잘 정비하면 이름난 등산로가 될 정도로 매력 있는 능선이다. 방화선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에는 억새와 잡풀들로 인하여 등산하기 좀 불편하고, 주로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가을에는 방화선을 따라 억새가 자라서 보기에 따라서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 삼악산에서 화악산으로 바라본 능선

3. 수량이 풍부한 계곡을 가지고 있다. 여름 휴양지로 인기가 높은 집다리골 휴양림을 가르는 계곡은 이산의 탁월한 장점이다. 휴양림 구름다리에서 시작하거나 하산할 때, 계곡을 따라 등산로가 나 있기에 언제나 탁족이 가능하다. 여름 산행의 큰 즐거움이다.



[편집위원 고재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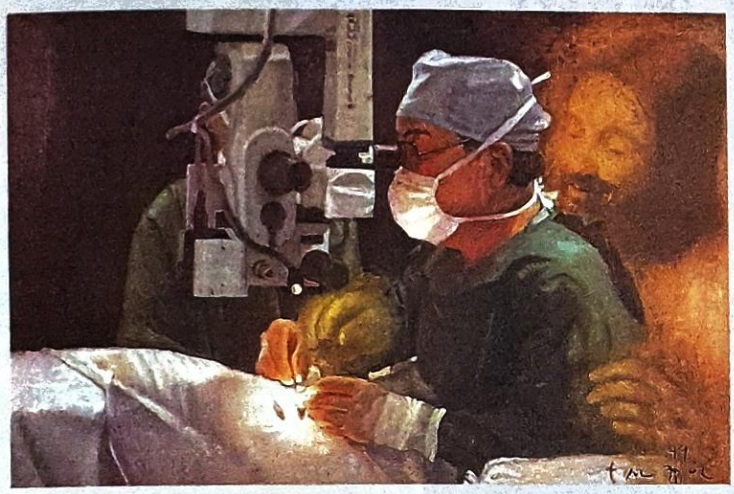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맘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운전앱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에스비 브라운상가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 직원구함(경력자우대)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신규인作 / 능하신 손(벧전 5:6) / 캔버스에 유화 / 91×60.6cm / 1999년

우리 몸은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도 존귀한 창조주의 작품입니다.
〈능하신 손〉이라는 명제로 회기 신규인은 우리에게 안과수술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속에는 의사와 환자를 돕는 또 한분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 분은 전능한 손을 가진 치료자입니다. 모든 어그러진 것과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힘을 주시는 복원의 예술가이십니다. 그 분의 손에는 아직 상처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상적 삶을 함께하시며, 특히 장애와 아픔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수술실에 능하신 손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환자와 의사는 수술실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을 발견하고 의뢰하는 믿음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편집위원 이 관 형]

지금 내가 힘들어도

지금 내가 힘들어도
그때의 주님만큼 그럴까

지금 내가 벗어버리고 싶어도
그때의 주님만큼 그럴까

지금 내가 슬픈 것 아무것도 아니니
지금 내가 아픈 것 아무것도 아니니

찢겨지고 미어지는 이 내 가슴 속이라 해도
쉼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주님만큼 그럴까

– 시인, 초록바람 한인순(한길교회)

|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9

손을 꼭 자주 씻어야 하나요?



고 석 연 (가정의학과)

딸 아이의 손에 뭐가 났다면서 한 아주머니가 딸을 데리고 진료실에 들어왔다. 수족구병이 아닌지 봐달라고 한다. 예전 같으면 무슨 병이냐고 물어볼 텐데 요즘은 이런 일들이 빈번하다.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인들의 질병에 대한 지식 또한 많아졌다. 물론 이 아주머니는 수족구병이 전염성 질환인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딸을 학교에 보내도 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돌아갔다.

수족구병과 같은 전염성 질환은 우리 몸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서 피해를 준다. 나 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해로운 것이 전염성 질환이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옮기게 되므로 전염성 질환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내가 병에 걸리지 않으면 내가 옮길 수 있는 사람들 또한 병에 걸리지 않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피라미드 효과라고 한다. 내 몸을 지키면 우리 공동체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염성 질환은 예방이 중요하다.

전염성 질환은 아주 많은 질환들을 포함하고 있고 감염 경로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일본뇌염은 모기에 의해 전파되고, 임질 같은 성병은 성행위를 해야만 옮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염성 질환은 호흡기나 경구를 통하여 감염된다. 공기를 타고 직접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기도 하고 오염된 음식물을 통하여 입을 포함한 소화기를 통하여 감염된다. 따라서 호흡기감염과 경구감염의 통로를 차단한다면 대부분의 전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로가 모두 단지 '손 씻기'라는 단순한 일을 통하여 차단될 수 있다. 경구 감염이든 소화기 감염이든 대부분 손을 매개로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음식의 요염은 오염된 손에 의한 경우가 많다. 또한 호흡기 감염은 기침할 때 발생하는 비말(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작은 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비말이 직접적으로 호흡기에 도달하는 일은 별로 없다. 오히려 비말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손을 코나 입에 댔을 때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하여 감염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따라서 손 씻기만 제대로 한다면 전파경로를 차단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전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손 씻기'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보통 세균 한마리가 10분에 한 번씩 분열을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20분이 지나면 4마리가 되고 1시간이 지나면 64마리가 된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면 4096마리, 3시간이 지나면 26만 마리, 4시간이 되면 1600만 마리가 된다. 즉, 4시간 동안 오염된 손을 씻지 않으면 가히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균이 내 손 위에서 살수도 있다. 전염성 질환에서는 병원성 세균의 감염 유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세균이 감염되었느냐에 따라서 질환의 발생뿐만 아니라 경과에도 차이가 있다. 비누로 씻을 경우 세균의 80-95%를, 물로만 씻어도 60-85% 정도의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전염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이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손 씻기만 잘하면 전염성 질환의 60-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같은 질환이라도 약하게 앓고 지나갈 수 있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은 가장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는 대상이다. 그런데 감기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씻지 않은 손으로 아이를 만지는 것은 감기에 걸린 사람이 바로 아이의 얼굴에 대고 기침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상상해 보라 콜록 콜록 기침을 심하게 하는 누군가가 내 아이의 얼굴에 대고 기침을 해대는 것을…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의식중에 이런 일들을 서로에게 너무나 자주 행하고 있다. 손 씻기는 사랑의 실천이다.

한가위를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을까?



올해는 한가위가 일찍 찾아왔다. 한가위는 음력 8월 15일로 설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다. 추석이라고 주로 부르는 한가위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은덕을 베푼 조상신에게 감사하며 명년에도 동일한 은덕을 베풀어주도록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음식을 만들어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워야 할 한가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달갑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제사문제 때문이다. 모두가 조상신에게 절을 하는데 나만 하지 않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한가위에 고향에 가지 않아도 될 만한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가위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감사로 보내자!

한가위는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명절이다. 우리 민족은 조상신이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보살펴서 형통하게 하고, 풍년이 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상신에게 추수감사를 한다. 하지만 조상신이란 없다. 참 조상도 아닌 귀신을 불러들여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보다는 살아계신 부모를 잘 섬기고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참된 효일 것이다. 추수에 대해 감사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는 예배이다. 올해는 특히 한가위 날이 주일이다.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자.

교제를 나누자!

한가위에는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된다. 가족 간의 교제를 나누며 힘겨웠던 삶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좋은 절기이다. 간혹 한가위에 가족끼리 서로 다투다가 상해를 입히는 뉴스가 나오곤 하지만 한가위는 허물을 덮고 서로 위로 · 격려하며 사랑과 관심을 회복하는 절기이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한가위에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부모, 형제들과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 자체가 우리 마음에 쉼을 줄 것이다.

받은 은혜를 나누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에는 그 절기를 혼자 즐기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 특히 어려운 사람과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가족과 함께 한가위를 즐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런 즐거운 절기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즐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혼자 계신 어른들, 외로운 어린이들, 고향이 있지만 갈 수 없는 탈북동포나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민 가정주부들, 멀리 떨어져 가족과 지낼 수 없는 선교사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그들과 함께 한가위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교회가 한가위를 이런 문화로 바꾸어 나간다면 그동안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라고 사회로부터 지탄받던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믿음을 전수하자!

한가위를 맞아 온 가족이 모이는 때는 믿음을 전수하기 아주 좋은 때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명절에 온 집안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며 지난날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야기하며 신앙역사를 자녀와 자손들에게 가르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신을 섬기지 않기에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한가위에 믿음의 조상을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자녀나 손자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믿지 않고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는 그 분이 이 땅에 살 때 자녀들을 돌보며 선한 삶을 살았던 것을 추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현재 자신의 자녀나 자손들에 대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가위에 주의할 것들

추모 예배 때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제사상을 차려서는 안 된다. 귀신에게 바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편한 음식을 준비하였다가 추모예배 후에 가족들이 함께 나누며 즐기는 것은 좋은 일이다. 향이나 촛불을 켜는 것은 기독교적이 아니다. 고인의 사진이나 영정 또는 음식물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죄가 되지 않는다. 성묘 갔을 때에도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한다든지 묘지에 술을 붓는 행위는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대표자가 간단히 기도하고 묘에 묻힌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묘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면 된다. 불신 가정에서 가족전체가 제사를 드리는 때에는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절하는 대신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된다. 이때 신앙상의 이유로 절은 할 수 없지만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다고 가족 앞에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편집위원 권 기 찬]

예 향

하나님편이 되려면

영국이 존경하는 정치가 가운데 17세기 "크롬웰"이 있다. 크롬웰은 당시 국민들을 무시하고 독재를 일삼던 찰스1세를 몰아내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을 펼쳤다. 영국 의회는 그에게 왕위에 오르도록 권고했으나 크롬웰은 이를 겸손히 거절한다. 크롬웰의 겸손하면서도 용기 있는 성품은 청교도였던 모친에게 왔는데 모친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게을리 하면 결코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없단다." 그렇다. 하나님의 편에 서자. 말씀과 기도에 붙잡히자!

[편집위원 최상도]

성 시 만 평

이 관형 · jysince93@hanmail.net



천도의 불길이여, 타올라라!

춘천성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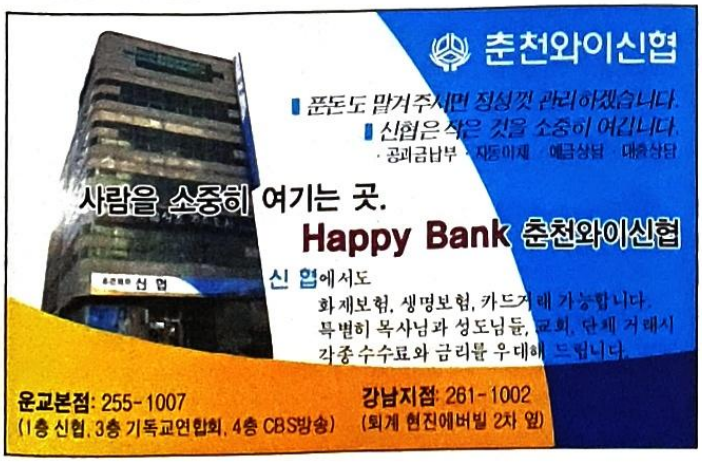
편집위원장 : 최 영 조

편집 위원 : 조영춘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고재만
김춘배 이관형 김미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결혼이민자 가족이야기
춘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춘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내국인과 결혼한 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잘 정착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비롯하여 가족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방문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정보화 교육, 한국악기교육 등과 한마음 다문화 열린 시부모학교와 부부학교, 가족 문화 축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한글왕기초반


한마음 다문화 열린 시부모학교


생활요리반

센터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일 시	장 소
한글왕기초반	매주 월, 수 1~3시	센 터
한글기초반	매주 월, 목 10~12시	
한글중급반	매주 화, 목 1~3시	
한글고급반	매주 월, 목 10~12시	
한글회화반	매주 금 1~3시	
너와나한글교육반	매주 목 1~3시	
한국악기교실	매주 목 3~5시	
생활요리교실	매주 수 10~12시	
라인댄스반	매주 월 3~5시	
정보화교육반	매주 화, 목1~3시	
영농교육(화훼장식)	매주 화 10~4시	
한마음 다문화 열린 부부학교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6시30분	
한마음 다문화 열린 시부모학교	매달 셋째주 금요일 2시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

구 분	내 용	수업방법 / 서비스 기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서비스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지도사가 결혼이민자 가정을 직접 방문, 결혼이민자의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교육과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주 2회(2시간) 지도사 가정방문 / 8월~12월
찾아가는 아동 양육 지원 서비스	한국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도사가 결혼이민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자녀의 발달 특성과 가정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임신 · 출산 지원 서비스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는 신전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단기간의 출산 전후서비스 제공	주 2회(2시간) 지도사 가정방문 /8월~12월 중 1, 2개월

■ 우리의 자랑! 국제행복나눔봉사단!!


봉사단 회의




기금마련행사

국제행복나눔봉사단은 각 나라 대표들로 구성되어 각 나라별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센터를 도와주는 소중한 일꾼들이다. 통역 뿐 아니라 매달 1회 모임을 통해 센터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항상 함께 하기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봉사단은 지난 4월 24일 제1회 기금마련행사를 마련하여 각 나라 의상을 입고 다문화를 알리고 홍보를 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많은 결혼이민자 가족들과 지역사회 가족들이 함께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인 기금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에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행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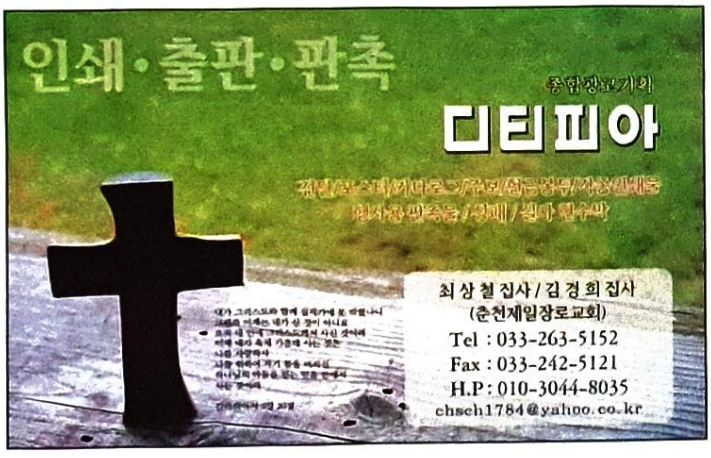
■ 뒤에서 소리없이, 말없이 도와주는 방문지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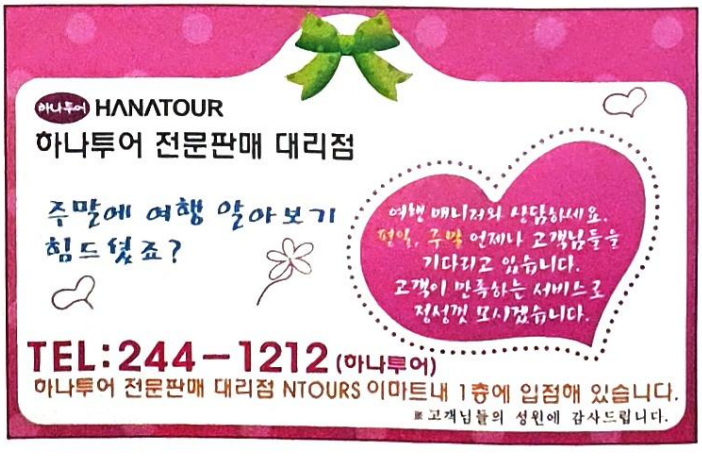

방문 지도사 회의 & 워크숍

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으나 집에서 센터가 너무 멀어서 오기 힘들거나 아이가 너무 어려서 센터에 올 수 없는 이민자 가족에게는 한국어 지도사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1:1로 한국어 교육을 한다. 그리고 1세부터 12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민자 가정 중 한국 문화를 잘 모르고 서툴러서 자녀 양육이 힘든 이민자 가정에는 아동양육 지도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아이 양육에 대한 점, 양육 상담, 한국 생활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현재 방문서비스 2차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문교육을 원하는 가정은 언제라도 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본 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밝은 웃음과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 일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 싶다.

<< 기관이용안내 >>
춘천시 죽림동 189번지 브리운가 6동 6303호
TEL : 033-251-8009 FAX : 033-254-6233
홈페이지 : www.kwholt.or.kr,
http://blog.daum.net/kwho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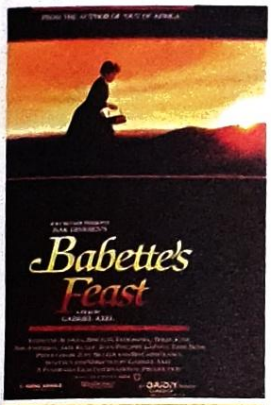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15>

바베트의 만찬 (Babette's Feast)





요즘 TV프로그램을 보면 먹거리에 관한 내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모 일간지에 인기리에 연재된 만화 '식객'이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모 방송국에서 드라마로 방영중이기도 함 정도로 우리 시대에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헐리우드에서도 최근에 나온 <사랑의 레시피> 등 음식영화가 상당수 제작되어 나왔으나 예술성과 더불어 신앙심 깊은 아름다운 감동의 영화로는 이 <바베트의 만찬>이 단연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원작자인 덴마크 출신의 여류 작가 이작 디네센(Isak Dinesen: 1885-1962)의 단편을 가브리엘 액셀 감독이 영상에 담은 작품으로 '바베트'라는 프랑스인 요리사가 복권에 당첨돼 받은 돈으로 덴마크의 외딴 마을에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프랑스식 만찬을 대접한다는 단순한 내용의 영화이지만, 수상 경력은 만만찮다. 1987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칸느영화제 세계 기독교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그 뒤로도 3년간 각종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휩쓸었다.

섬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었던 바베트의 숭고한 사랑, 반목된 이웃들을 화해시키고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리사 바베트의 이야기는 요리를 사랑의 행위로 바꾸어 음식의 솜씨와 맛을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는 참으로 보기 드문 아름다운 영화이다. 어쩌면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 주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게도 한다.

명절이 있는 이 달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넉넉하고 풍성한 음식을 통해 이 영화의 메시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더욱 알차게 영그는 믿음의 열매 하나씩 더 맛보기를 권해 본다. [1987년 작 상영시간 102분 모든 연령층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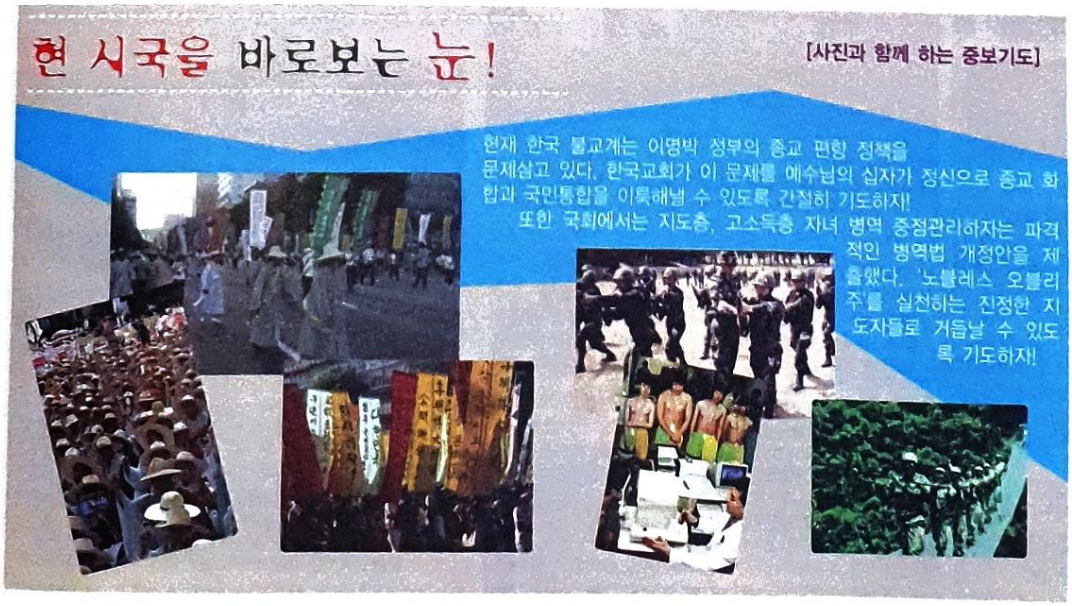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현 시국을 바로보는 눈!

[사진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



현재 한국 불교계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정책을 문제삼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종교 화합과 국민통합을 이룩해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또한 국회에서는 지도층, 고소득층 자녀 병역 중점관리하자는 파격적인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진정한 지도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우이신협 04073-12-009998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를 위한 3천후원자 모집일
1구좌 개인 2천원 단체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8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광영감리교회	
광명장로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임성결교회	
새순성결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장로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수촌교회	주영광교회	
주향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	
한빛장로교회	평화실로암교회	
춘천와이신협	천일현수막	
국민일보 춘천지사	제시뉴욕	
강선희	강옥자	강태랑
김기태	김길홍	김라현
김미경	김미경2	김미경3
김복심	김성국	김성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일
김요섭	김은선	김재철
김재홍	김종찬	김진상
김태숙	김현배	김현철
김희경	남상구	마호숙
배진철	박난영	박동환
박래희	박제자	박종근
박형숙	변춘자	석지찬
송난의	신성균	심경하
심인섭	안미애	안정숙
안현주	양금환	엄필남
오외석	오홍수	원희정
유갑순	유근창	유병준
유성현	유영호	유인혁
유재형	윤성자	이규현
이내리	이동인	이명순
이무식	이병연	이병일
이상돈	이순자	이영진
이용규	이원균	이원기
이원영	이윤숙	이정이
이진주	이태경	이학규
이혜인	임재철	장기남
장기영	장선정	장소영
장소희	장요한	장창순
전영목	정규시	정은하
정재균	정재호	정재현
정주연	정찬복	조건이
조명호	조소현	조은제
조정일	조정자	주승희
지경화	최병숙	최상호
최을웅	최종덕	최치광
최혜영	한성아	한희현
황종현	허미정	허순영
허언영	허인영	홍순복
홍순신	황병찬	황은주
황정섭	황진석	홍택기

7기 두란노어머니학교

어머니학교는 성경적인 여성상을 제시하여 이 땅의 어머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자녀를 향 영육하여 가정을 세우며 궁극적으로는 영국의 어머니로서 교회와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일 시 ▮10월 14일 ~ 11월 11일 5주 과정 (매주 화요일 오전10~3:30)
장 소 ▮베드로선교센타 5층 추수홀
등록비 ▮10만원(농협 301813-51-107783 예금주 김화숙)
문 의 ▮011-368-9044, 018-325-1968, 011-363-0926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1:8)

15기 선교세계관학교(MPS) 춘천 선교훈련생 모집

○ 훈련기간: 2008년 9월 20일(토) ~ 11월 22일(토)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8시)
○ 장 소: 베드로선교센타 5층 (법원-강대정문사이 봄내병원과 동일 건물)
○ 강의내용: Mission Perspectives -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에서 본 선교
○ 훈 련 비: 7만원 (교재비포함)
○ 문 의: 베드로선교센타 사무실 253-3399 /010-4116-5373
○ 주 관: (사)베드로선교문화센타 · 비하르선교협의회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 상 호 목사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대적 난국에 부딪혀 있다. 촛불은 컨 자들과 촛불을 끄라는 자들 사이서, 나는 그저 구경꾼일 수밖에 없는지 스스로 판단이 어렵다.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 한창 치열했던 무렵인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인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고 연설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의무이다. 지금 우리나라를 황폐케 하는 이 남북전쟁의 창화는 우리의 엄치없는 죄에 대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성공에 도취되어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오만해졌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했다. 현수막에 "광우병 소 수입 결사반대"라고 하였는데 광우병 소 수입을 찬성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그게 아니고 왜 일본 같은 나라에는 30개월 넘은 쇠고기를 팔지 않았고 왜 우리나라에는 팝니까?"라는 것이었다. 나는 또 질문을 했다. "그러면 납덩어리가 들어 있는 계와 생선을 팔거나 고기대신 종이를 풀어 넣고, 농약이든 채소를 넣어 만든 만두를 수출 판매한 나라(C국)에 대해서는 왜 촛불을 들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 청년이 외로운 시위를 했다. 달랑 혼자서 몇 개의 피켓을 들고 어마어마한 군중들 앞, 그것도 폭력이 난무한 시위대를 상대로 청계광장 앞에서 촛불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다.

"6.25때 자국민 4만 명을 희생시키고 우리도 용서 못하는 버지니아 공대총기 난사 범 조승희를 용서한 나라, 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남이 든 생선도 농약이 들어간 만두도 수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최고기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먹습니다. 우린 지금 스스로 광우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수출무역국가인 조국을 위해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정말 어수선하다. 안방의 시어미 말도 그럴듯하고 부엌의 며느리의 말도 그럴듯하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광복63주년, 건국60주년인 뜻깊은 이 해에 진실한 조국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단합된 국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그리고 전 국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더욱 지혜롭고 겸손한 능력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 전도협회
1) 새소식반 장습회
일시: 9월 22일 ~ 11월 24일(11주) 매주 월요일
오전반 10:00~1:00 / 저녁반 7:00~10:00
모집: 지회로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

◆ 예스컴
1) 청소년 연합찬양집회 "예스컴 프레이즈"
일시: 9월 20일(토) 오후6시 장소: 중앙성결교회
강사: 김근수 목사(세인교회 담임)
문의: 244-5400, 예스컴클럽club.cyworld.com/yescomclive
신유정간사010-5422-2321 한승연간사010-3369-6994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춘천CCC 개강세미나(오한복음)
일시: 9월 1일(월) ~ 3일(수) 장소: 장소:ccc회관
2) 신구임원 교제식
일시: 9월 5일(금) 장소: 장소:ccc회관
문의: 252-0542, 254-5776

◆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2) 춘천ME(Mission Exposure)
일시: 9. 22~10. 20 매주 월요일 오전9:00~ 오후1:10
장소: 춘일감리교회 회비: 5만원(등록 후 참가가능)
문의: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033)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rn]

◆ IVF
1) 연합 'RUN' (중보기도)
일시: 9월 5일(금 오후7시 장소: 춘천 IVF회관
2) 제자학교 개강
일시: 9월 22일(월) 오후7시 장소: 춘천 IVF회관
3) 미션스쿨 개강
일시:9월 22일(월) 오후7시 장소: 춘천 IVF회관
4) 친구 초청의 밤
일시:9월 23일(화) 문의: 252-5200

◆ JDM
1) 전체개강예배
일시: 9월 4일(목 오후7시 장소: 온누리교회
2) 리더뱀샘기도회
일시: 9월 9일(화) 장소: WDTI 헤븐스 도어
문의: 033)243-6701, 010-2704-3375

◆ GBT성경한역선교회
1) 대표이 · 취임식
일시: 9월 3일(수) 오전11시 장소: 남서울은혜교회
2) 국내사역자소풍
일시: 9월 16일(화) ~ 17일(수)
3) 위클리프스쿨 개강
일시: 9월 22일~12월 1일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예담교회 [chuncheon@v2025.or.kr]
문의: GBT춘천지부 이지혜 간사017-383-2416

◆ 세계태권도선교회 춘천지회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9시~10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 새벽날개 워십댄스팀 모임
1) 워십댄스 토요모임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3시~5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2) 어린이 워십반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3시~5시 문의: 017-374-2440

◆ 제이락(춘천연합찬양단)
일시: 8월 4일(월) 오후7시30분 장소: 효자감리교회
문의: 박유식 010-9368-9856

◆ 예수님 길교회
창조과학을 교과서에 담자! 창조과학교과서 쓰기 운동
기간: 2008. 7. 15 ~ 12. 31일까지
장소: 거리서명 - 명동에서 하루 2시간씩(오후2:00~4:00)
문의: 창조과학 교과서 쓰기 운동본부(가칭) 010-2245-6091

◆ (재)기독교한국효신선교회
춘천 대안교육 학생모집
소개: 적성을 찾아주고 꿈을 심어주는 미국의 메트스쿨 같은 대안학교를 지향. 대상: 중고교생

◆ 자원봉사자 및 전문멘토인 모집
주제: 자녀를 성공시키는 어머니
일시: 9월 3일부터 12주 과정 [매주 (수) 오전10:00~12:30]
장소: 신사우동 도서관 2층 시청각실
내용 : 가정의 행복원리, 건강한 자아상 갖기, 자녀에게 비전 심기 교훈과정계, 대화법, EQ증진법, 남편 사랑법 등
주관: 가족어울림센터 (255-1991)

◆ 목회자 특구회원 모집
일시: 월 ~ 토요일 매일 오전6시 장소: 공지천족구장
회비: 무료 문의: 011-361-1995

◆ 특별 워드미션 - 춘천 땅에 새로운 선교에베가 시작됩니다!
일시: 2008년 9월 8일(월) 오후7시 강사: 인터콥 선교사
장소: 석사감리교회 (석사 사거리)
문의: 인터콥 이비파 선교사(010-2055-5543)

◆ 인터콥 비전느쿨 No my vision, Yes HIS VISION!
입학식: 2008. 9. 18(목) 일시: 9월 18일부터 12주간
대상: 선교관심자 및 헌신자 장소: 추후공고
문의: 장명자 간사(016-797-9234) interpcc@emp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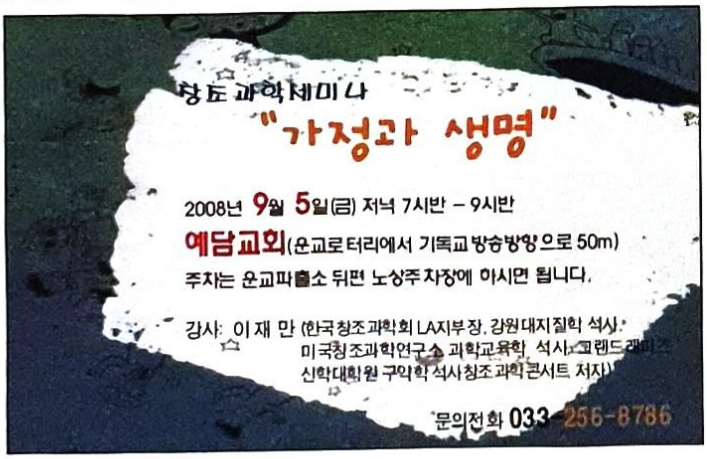
◆ 7기 두란노 어머니학교
일시: 10월 14일 ~ 11월 11일
5주 과정 (매주 화요일 오전10~3:30)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문의: 011-368-9044, 018-325-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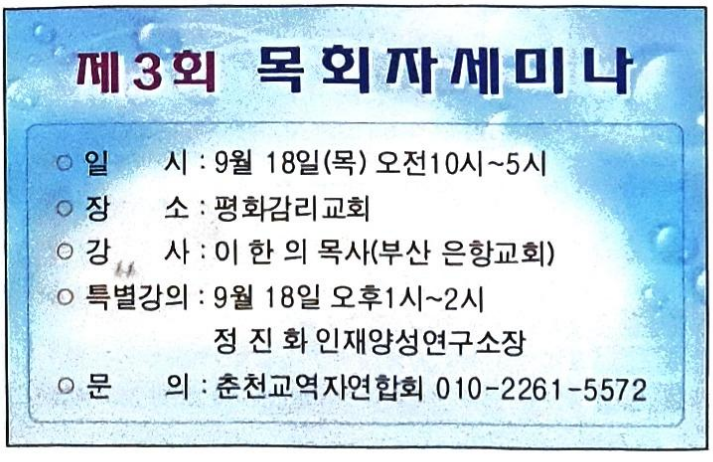
◆ 바자회(봉사후느끼는 행원 건축기금모금)
일시: 9월 27일(토) 오전10:00~18:00
장소: 소양제일교회 (퇴계동 한주A 근처)
주관: 소양제일교회 문의: 262-0999, 263-5454

◆ 2008 춘천선교대회
일시: 10월 5일(주일)~ 8일(수) 오후7시 장소: 평화감리교회

◆ 춘천성시화를 위한 임동전목사 초청 간증집회
일시: 9월 30일(화) 저녁7시 장소: 호반체육관
주최: 오순절교회 (김지훈 목사) 263-0280, 010-8263-0190

◆ 제3회 목회자세미나
일시: 9월 18일(목) 오전10시~5시 장소: 평화감리교회
강사: 이한의 목사(부산 은항교회)
특별강의: 오후1시~2시 정진화 인재양성연구소장
문의: 춘천교역자연합회 010-2261-5572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창시포, 북한강 살리기 캠페인 펼쳐



창조도시시민포럼은 8월 10일(주일) 오후4시 주향교회에서 환경위 주관으로 '북한강 살리기 운동 (캠페인 대회)'를 펼쳤다. 또한 8월 21일(목) 오후7시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는 '경춘 고속도로 및 전철 완공에 대비한 춘천이 준비해야 할 과제'를 주제로 8월 월례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외수, 학대받는 아동 위해 작품 기부



소설가 이외수씨가 학대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작품을 기증하고 직접 티셔츠 모델로 나섰다. 어린이재단(회장:김석산)은 이외수씨 작품 "아이야! 희망은 아름다운 거란다."를 티셔츠로 만들어 8월 5일부터 온라인 쇼핑몰(www.11st.co.kr)을 통해 판매한다. 이외수나눔셔츠는 9,900원에 판매되며 수익금 전액은 결식아동과 학대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에게 지원된다.

■ 최희암 농구감독의 사랑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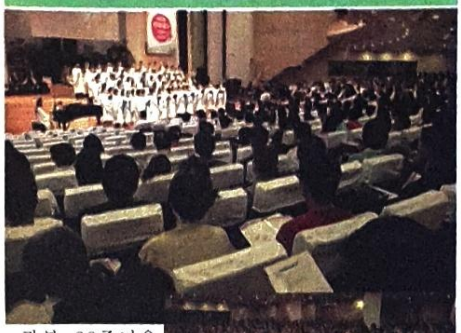
8월 11일 인천 전자랜드 블랙슬래머 '최희암 감독'은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최기원)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정기후원을 지원하였다. 최 감독은 강원도 양구에서 전지훈련 중, 본 기관 아동학대캠페인에 참여하여 후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희암 감독은 "작은 나눔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소감을 나눴다.

■ 강원도 목회자체육대회 준비모임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김주환)는 8월 22일(금) 춘천지역 교계지도자들과 춘천기독교연합회 임원과 체육대회준비위원을 초청하여 '강원도 목회자 친선체육대회 및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행사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갖고 만찬을 열었다.

광복 63주년을 되새기며





광복 63주년을 맞아 8월 17일(주일) 오후7시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는 춘천기독교 교역자연합회(회장:피종호) 주관으로 '광복절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용찬부회장의 사회, 이춘일교경협의회장 기도, 박재영협동총무 성경봉독, 정재호성시사무총장 특별기도인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손학균목사, 춘천시복음화와 교회부흥을 위해서는 지태성부회장이 기도하였다. 허천국회의원과 이광준춘천시장의 축사, 권오서도기독교연합회증경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초청강사 소화춘목사(충주제일교회)는 "고난의 역사 교훈(신명기 32:7~10)"이란 제목으로 "고난의 때를 기억하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다음세대들에게 역사의 아픔을 알려주며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시화를 위한 사무국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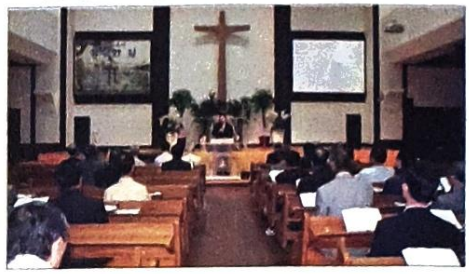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8월 1일(수) 오전11시 성시본부에서 사무국 월례예배를 드리고 춘천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였다. 황진석 목사(강남교회)는 잠언 19:23절 말씀을 통하여 "성공의 법칙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 그리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고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하였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기도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김성호위원장, 조영춘부본부장, 정재호사무총장은 8월 15일(금) 오전9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평화한국(대표:허문영) 주최 '정부수립 60주년과 한국기독교 세미나 및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기도회'에 참석하였다. 건국 60주년을 회고하며, 기독교계가 한국의 정치, 경제, 통일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하고 현재를 성찰,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 하나님나라 확장과 우리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였다.

■ 홀리클럽 정기 기도회



춘천홀리클럽(회장:이학규)은 8월 25일(월) 오전6시30분 새순교회(담임:박찬욱)에서 8월 정기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박찬욱목사는 "빛을 발하는 홀리클럽"(마5:14~16)이란 제목의 설교로 홀리클럽 회원들에게 사명감을 다시 불 붙어주었으며, 기관장기도모임, 강원도와 춘천기독교연합회 행사, 춘천시의 안정과 발전 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홀리클럽은 백두대간 횃불기도회와 춘천선교대회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오전6시30분 순복음춘천교회에서 갖는다.

■ 기아체험 24시간 리더교육



월드비전은 8월 23일(토) 본 기관 강당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2008 기아체험24시간 리더교육을 실시하고 지구촌의 기상이변과 곡물부족 등을 초해하는 "지구촌의 물"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아동청소년들의 권리향상을 위하여



월드비전 강원지역 아동청소년권리센터(소장:박재호)와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가족지킴이센터는 8월 20일(수) 오전10시 강원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백준식)와 아동청소년들의 권리향상 및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 섬김의교회 이전감사예배



섬김의교회(당회장:권기호)는 동내면 거두리 919번지 대동빌딩 301호로 예배당을 이전하고 8월 25일(월) 오후7시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춘천시장로교연합회장 권기호 목사(춘천시민교회)의 사회, 김현일 목사(동서울노회장, 속초신흥교회)는 마태복음 16:16절 말씀을 통해 '생명력 있는 고백이 교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섬김의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귀한 섬김이 되고, 지역 사회에서 올바른 섬김을 실천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것을 결단하였다.

취재 · 김 미 경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푸른강원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중점사업 : 북 강원도어린이결핵퇴치운동



강 사

조용기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대 회 장

김주환 목사
강원도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준비위원장

한 균 목사
춘천시기독교
연합회장

2008년 9월 28일(주일) 오후 4시

춘천 호반 체육관

주 최 :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후 원 : 강원도, 춘천시, 강원일보사, CBS춘천방송, 춘천시기독교연합회
특별후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18개 시 · 군 기독교연합회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The Christian Council of Gangwon

강원도민 사랑운동본부

춘천성시화운동본부